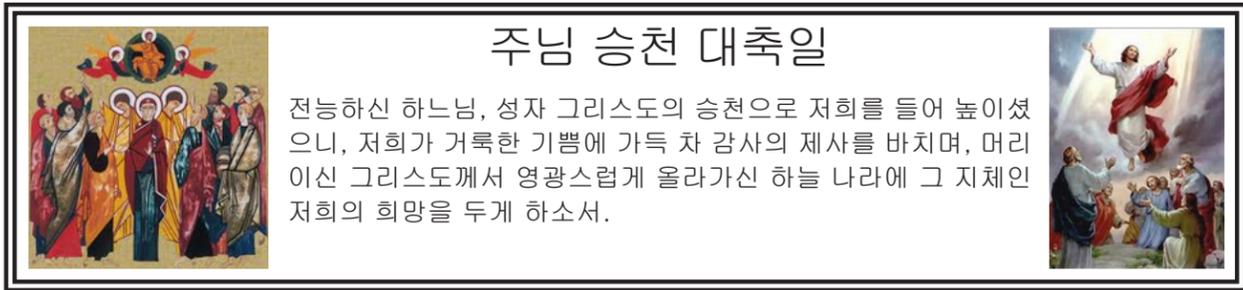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주님 승천 대축일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 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 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유길수 크리스토퍼, 유경애 아녜스 가정
- 이우영 가브리엘, 김수연 율리안나 가정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실업자들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과 일자리를 찾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묵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마태26,3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11,2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시기에 그 마음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신심미사

- 예수성심 미사(6/6) : 오전 10시 미사, 십자가의 길
- 성모성심 미사(6/7) : 미사 30분 전 묵주기도, 오전 10시 미사

성령강림 대축일(6/8)

“성령께 기도하고 그 전구를 빌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령의 보호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슬기가 없고 힘이 약하고 문제에 시달리고 죄짓기 쉬우면 쉬울수록, 그분께로 더욱 매달려야 할 것이니 성령은 결코 다하지 않는 빛과 힘, 위로와 성덕의 원천이 되시는 까닭입니다.”

- 교황 레오 13세 -

맨하턴 공동체 미사

- 일시 : 6/14(토) 오전 11시
- 장소 : 맨하턴 성 토마스 모여 성당

재무감사에 따른 지침

- 현금/교무금 수납자 별도 선정
- 재무 대리 육성
- 재정보고 Quickbooks 첨부(번역) 금지
- Quickbooks 파일 백업과 계정 서류 보관 철저

기타

- 오늘, Holy Spirit 본당에서 토니 신부님의 서품 60주년 미사(오후 1시)가 봉헌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저희 공동체는 재무감사에 따른 캔사스대교구의 지침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정의 투명성에 힘쓰겠습니다. 평협 일동.
- 구역회의 결정대로 6~8월까지 구역모임은 없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칩
141	217	163/175	141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종 복사
금주	김준영 (요 셉)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서은 (세라피나)	차호섭 (요 셉)
차주	문예나 (요 안 나)	안광민 (야 고 보)
	안지영 (카타리나)	문석찬 (요 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 네 스)	감영진 (라 파 엘) 한춘희 (라파엘라)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조장군 (바 오 로) 우숙정 (아나스타시아)

애찬 봉사자

금주	손정화, 양정희, 유경애, 한춘희, 황의정
차주	최선윤, 정선식, 서정애, 김수연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 셉)
차주	김시연 (엘리사벳), 백문주 (엘리사벳)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5/25	84명	309불	1,710불
박성기, 남기하, 김호원, 류기범, 김정원, 주영길, 박재권, 안동현(총 8세대)			

주님 승천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6월 1일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스럽게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힘입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내리신 복음 선포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거듭 다짐하며 주님 승천의 축제에 기쁘게 참여합니다.

성화해설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28,19-20)

주님 승천 대축일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 줍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상으로 오르셨듯이, 우리 모두는 지상에서 순례의 길을 끝마치면 우리의 본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늘 그리워하는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 1,1-11 <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



◎ 환 호 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오르시도다 - 하느님오르시도다

○ 만 백성 너희들은 손뼉을 쳐라. 기쁜 소리 드높이 주님 불러라. 주님께서는 지존하고 지엄하시다. 온누리의 크옵신 임금이시다. ◎

○ 환호 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께서 오르시도다. 나팔소리 나는 중에 주님 오르시도다.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고를 타며 우리랑께 노래를 하여라. ◎

○ 하느님은 온 땅의 임금이시니, 멋지게 고를 타며 노래 불러라. 하느님께서 뭇나라를 다스리시도다. 거룩하신 여좌에 앉으시도다. ◎

제 2 독 서 : 에페 1,17-23 <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 마태 28,16-20 <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

쉐 마

“더러는 의심하였다”



더러는 의심하였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야기도 나눴고, 함께 빵과 물고기도 나눠 먹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고 너무너무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를 하고도 의심을 합니다. 무엇을 의심한 것일까요? 부활, 예수님, 가르침, 기적, 그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처 난 손과 옆구리를 보고도 어떻게 의심을 품을 수 있는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제자들까지도 파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굳게 믿는 제자들 몇 명만 따로 불러서 앞으로 할 일을 말씀하시며 파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너희와 같이 있을 테니 가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린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도 능력이 안 되면 또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시원치 않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어쩔 이렇게 철저히 믿으실 수 있으신지! 예수님의 무모함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모함이 마태오 복음 28장에서만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미련하기까지 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감실 앞에 앉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위로와 편안함. 삶이 너무 어려워 십자가상 앞에서 원망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고통과 그 고통 안에서 우리를 따스하게 바라봐주시는 연민과 믿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성당에 들어갔을 때, 저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느낀 예수님의 기적. 우리는 자주 의심하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활동하고 계신가? 성령이 나를 하느님께로 이끌고 계신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신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만 내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했던가요?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달거나 쓰거나 맵거나 짜거나 어떤 맛이든지 꼭 씹어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달달할 때나 쓴쓸할 때나 언제나 우리를 믿고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하고 착실해야 이뻐하실거라 믿습니까? 성당 열심히 나가고 봉사활동 잘해야 예수님 앞에 나갈 면목이 됩니까? 더러운 것을 묻히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지금 못 나가고 자꾸 내일, 조금 있다가, 이것만 어떻게 잘 해결하고 나면,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라는 이유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하는 제자들을 감싸 안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선하고 착실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선하면 그 모습으로 좋아하시고, 부족하고 아프고 더러우면 또, 그대로 우리를 믿으십니다.

더러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나 자신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의심은 믿음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느껴보세요. 의심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 서울대교구 조재형 신부 -

주춧돌

제 1 편 하느님 공경

제3-1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숫양의 굳기름보다 낫습니다”(1사무 15,22).

< 주석 >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여 따르는 것을 말한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양떼와 소떼를 전리품으로 챙김으로써 왕위에서 배척을 당한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1사무엘 15,23).

번제물: 번제(燔祭)는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를 말한다. 양과 소를 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것이 귀한 것이기는 하나, 순종하여 말씀을 따름만 못한 것이다. 호세 6,6에서는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의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라고 말한다.

< 설명 >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가? 사무엘 예언자는 사울왕에게 순종이 번제물보다 낫다고 가르친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에서 배척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느님께 순종하여 따를 때 번영을 누렸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할 때는 온갖 시련을 당해야 했다.

< 교회 가르침 >

▶ 신앙으로써 인간은 온전히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하느님께 복종시킨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전체로,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동의를 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이러한 인간의 응답을 “신앙의 복종”이라고 부른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3항).

▶ 동정 마리아께서는 가장 완전하게 신앙의 복종을 실천하신 분이시다. 마리아께서는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루카 1,37) 하는 말씀을 믿으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주님의 탄생 예고와 약속을 받아들이며,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하고 동의하신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8항).

< 어록 >

▶ 순종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거룩한 가르침을 자유로이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